

## 서울대병원 연구팀 '인공심장판막' 국내기술로 첫 개발

4천만원 수입산 대체...수출도 추진

이병문 기자 입력 : 2018.10.25 12:44:15 수정 : 2018.10.26 06:16:51

개당 3000만~4000만원대 수입품이 독점해왔던 인공심장판막시장에 첫 국산 제품이 출시됐다. 국산 제품은 수입산과 달리 가슴을 절개하지 않고 정맥을 통한 시술이 가능하고, 적응증(치료 가능 질환) 역시 4배나 높아 시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. 서울대병원 연구팀(김기범·김용진·임홍국)과 태웅메디칼은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폐동맥 인공심장판막이 최근 2년간의 임상시험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.



연구팀에 따르면 동물실험 시행 후 2016년부터 시작한 임상시험에서 환자 10명에게 돼지와 소 심장 외막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을 이식하고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. 특히 이종이식의 가장 큰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'제로'에 가까워 면역억제제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. 이번에 개발한 인공심장판막은 지난 6월 미국 심장학회 잡지 '혈액순환, 중재시술(Circulation, Cardiovascular intervention)'에 소개돼 큰 화제가 된 바 있다. 현재 외국에서 개발돼 쓰이는 인공심장판막 제품은 개당 3000만~4000만원대다. 가격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10년마다 판막을 교체해야 하는데 최초 수술은 가슴을 여는 수술이 필요하다. 그러나 이번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스텐트-폐동맥인공판막은 처음부터 가슴 절개 없이 정맥을 통한 시술이 가능하다. 또 스텐트가 견고하고 폐동맥 크기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. 환자들 수술과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.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 실제로 일본, 대만, 홍콩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용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.

유럽 허가를 위해 연구팀은 다음달 유럽 6개국, 11개 소아심장센터와 만나 협의하기로 했고 내년 초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.

[이병문 의료전문기자]

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